

기고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이 담아야 할 것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는 본래 생물학 연구자로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3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그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하면서 교육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장 피아제와 같이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태학적 접근 및 전생애적 관점에서 인간발달을 다루는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생애초기 발달과 부모의 성인기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호적이고 양방향성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한다.

성인기 부모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부모의 학습은 평생학습의 정의와 일치한다. 평생학습이란 일상적 경험과 삶이 학습의 소재가 되고, 학습의 결과가 삶에서 실현되는 학습이라 정의될 수 있는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배움을 얻고 이러한 배움은 다시 자녀와의 관계 및 타인과의 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이

다. 부모에게 자녀라는 주요 타자와의 관계는 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가 깊이 만나는 밀접한 관계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 관계, 성장, 인생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이 된다.

학습은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부모-자녀의 관계를 통한 성인 부모의 학습이 부모 개인과 가족, 공동체 및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한 축이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및 역량 향상이라면, 또 다른 축은 부모의 자아 발달과 전인적 성장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전자는 자녀가 생애초기 발달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부모 역할의 정의와 정

체성 형성 및 자녀와 타인에 대한 관점 변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 정립, 삶의 의미 정의 등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이다.

현재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자녀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역량 향상,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 장려를 위한 교육정책 개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녀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삶의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등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장을 통한 학습 측면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를 학습의 소재로 하여 부모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러한 성장이 공동체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로 연결되도록 내용적 측면에서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성인학습의 원리가 비중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부모교육 프

그램이 생애초기 발달 관련 지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술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부모의 존재론적 인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같은 보다 깊은 수준의 학습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활에서의 경험을 성찰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나가기 위해서 성인학습은 지식 전달 보다는 학습자의 경험의 소재로 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주도적 참여와 동료 간 피드백과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을 촉진해줄 수 있는 학습 촉진자(learning facilitator)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획득되는 부모의 실천적 지식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삶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 양육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기 부모의 학습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사의 학습촉진자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성인학습 원리에 적합한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기고

‘화재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일이 작을 때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큰 힘을 들이게 됨을 말한다. 화재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화재초기,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진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하고, 화재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망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하고,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의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기관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일반계층까지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알선 등 동참 호소와 지원센터 운영 등 쉽게 구매하거나 설치토록 지원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화재라도 한번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꼼꼼히 점검하고 휴어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길 바란다.

박철희/화순119안전센터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요주의보

최근 각종 대형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무단횡단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

는다면 그 어느나라 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갓가지 유형의 무단횡단이 있지만 특히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한

다. 대부분 도로상의 육교 설치 지점을 보면 왕복 8차선이상, 내리막길 위험한 도로상,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 등 교통사고에 강하게 노출돼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자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행자들은 이러한 육교 설치 목적을 간과하고 육교위로 올라가지 않고 인간의 본능적인 편리함의 유

혹에 빠져 위험을 무릅쓰고 육교 아래를 재빨리 달려 횡단하곤 한다.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요소요소 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 법규를 잘 지켜야 하겠으나, 특히 보행자의 교통사고 최대 위험인자인 무단횡단은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